

교육부 검정

2018. 9. 14.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이삼형

김창원

권순각

안 혁

하동원

박찬용



지학사





» 표지 이야기

서로 대화하고,
손을 맞잡으려 하는 모습을 통해
화법과 작문의 가치가
소통과 교감에 있음을 표현하였다.

» 교과서 물려주기 기록표

연도	교과서 사용자				상태
	학년	반	번호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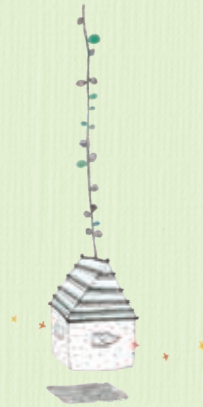
> 상태 표기 예시: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이 교과서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여러분, 미래 사회에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창의성, 인성, 정보 기술 등 많은 역량이 거론되는데, 여기서 빠지지 않는 것이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 역량입니다. 정보의 양이나 정보 처리의 속도는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 없지만, 대화하고 협력하며 모두가 만족하도록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디지털화 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역량입니다. 우리가 『화법과 작문』 과목을 배우는 이유는 이러한 역량 즉, 언어를 통해 서로 의사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화법과 작문은 나를 표현하고 타인과 교감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또한, 화법과 작문은 단순한 정보 처리나 전달에 그치지 않고, 언어로써 사고하고 함께 고민하며 삶의 질을 높여 가는 활동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국어』 과목에서 ‘듣기·말하기’와 ‘쓰기’ 활동을 배우고 익혔는데, 『화법과 작문』 과목에서는 그를 심화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화법과 작문의 유형과 관습을 익히고, 의사소통을 통하여 자신을 성찰하고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둡니다.





이 교과서의 저자들은 여러분이 바람직한 화법과 작문 활동의 주인이 되어, 앞으로 맞이할 학업이나 직업 세계에서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식을 머릿속에 넣기보다 원리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주어진 과제를 그저 해치우기보다 스스로 목표를 정하여 즐겁게 활동하는 데 힘을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교과서가 정답’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다양한 실험을 활발하게 시도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이 교과서가 여러분의 충실한 안내자이자 도우미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법과 작문』 과목을 통해 우리 모두 한 단계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그를 통해 만나게 될 행복한 세상을 꿈꿔 봅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짚어 가며 차근차근 시작해 볼까요?

저자를 대표하여,
이삼형 씀.

구성과 특징



대단원 도입

- 대단원명과 중단원명을 통해 학습할 내용을 예측합니다.
- 대단원의 성격과 학습의 방향을 이해합니다.
- 대단원 학습을 통해 익혀야 할 핵심 역량을 알아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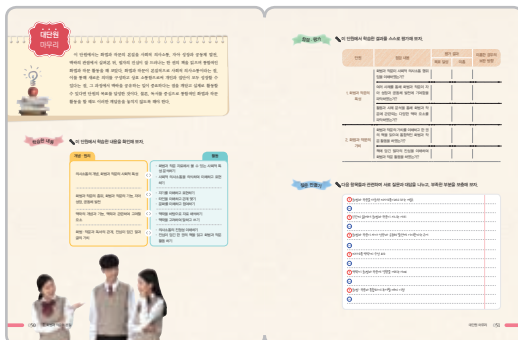
중단원 도입

- 명화와 명언을 통해 중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예측합니다.
- 교육 과정에서 추출한 중단원 학습의 목표를 살펴봅니다.
- 중단원에서 학습할 핵심 내용을 확인하고, 공부의 계획을 세워 봅니다.
- 소단원 학습의 순서와 배우고 익힐 내용을 알아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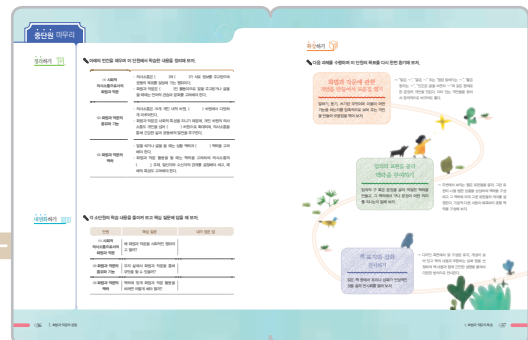
대단원 마무리

- 대단원의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언어생활에서의 의의를 다집니다.
- 중단원별로 배운 개념·원리와 활동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 중단원별로 학습한 내용을 점검하고 스스로 평가해 봅니다.
- 대단원의 학습 내용에 관해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합니다.



중단원 마무리

- 정리하기: 소단원별로 학습 내용을 환기하여 정리합니다.
- 내면화하기: 핵심 질문에 답하며 학습 결과를 내 것으로 만듭니다.
- 확장하기: 학습한 내용을 일상생활로 확장하여 적용해 봅니다.



- 이 교과서는 교육 과정의 내용 체계에 따라 단원을 구성하되, 학습 목표와 내용에 맞도록 단위 구성 방식을 달리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 이 교과서는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고, 창의와 인성을 기를 수 있는 제재와 활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화법과 작문의 본질을 익히는 단위에서는 기본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고 다양한 제재를 통해 이를 이해·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화법과 작문의 실재를 익히는 단위에서는 화법과 작문의 과정에 따라 기본 원리를 익힌 후('하면서 배우기') 학생 스스로 실제 화법과 작문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배워서 하기'). '배워서 하기'를 순서대로 따라 가면 총체적인 화법과 작문 활동이 완성됩니다.
- 화법과 작문의 관습과 언어문화를 익히는 단위에서는 모범이 되는 제재를 통해 성취 기준을 달성하고 화법과 작문의 통합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소단원 학습

I 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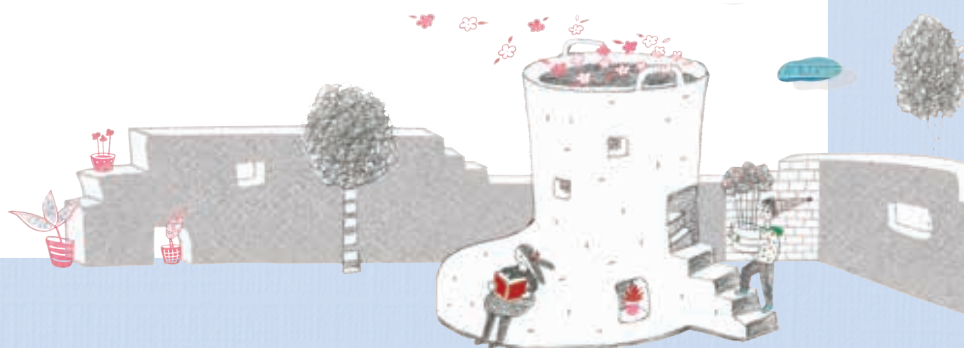
생각 열기	• 핵심 질문에 바탕을 둔 활동을 하며 단위 학습을 준비합니다. • 단원에서 배우고 익힐 내용을 '알기'와 '하기'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개념·원리 학습	• 학습 목표와 관련된 개념과 원리를 익힙니다.
학습 활동	• 이해하기: 활동을 통해 배운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점검합니다. • 적용하기: 다양한 사례나 예문을 통해 화법과 작문을 실제로 수행하며 학습 목표를 달성합니다.

II, III 단원

개념·원리	• 배워야 할 개념과 원리를 세분하여 이해합니다.
하면서 배우기	• 다양한 사례나 예문을 통해 구체적인 기능을 습득합니다.
배워서 하기	• 습득한 기능을 활용하여 실제 화법과 작문의 과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IV 단원

제재	• 화법과 작문의 통합에 바탕을 둔 제재를 살펴봅니다.
학습 활동	• 이해하기: 제재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를 바탕으로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활동을 합니다. • 적용하기: 다른 사례나 예문을 통해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보는 활동을 합니다.





I

화법과 작문의 본질

1. 화법과 작문의 특성	10
(1) 사회적 의사소통으로서의 화법과 작문	12
(2) 화법과 작문의 층위와 기능	20
(3) 화법과 작문의 맥락	30
2. 화법과 작문의 가치 한 권 읽기	38
• 진심을 담은 말과 글	40



II

화법의 원리와 실제

1. 소통과 공감을 위한 화법	54
(1) 대화를 통한 자기표현과 갈등 조정	56
(2) 상황에 맞는 말하기	65
(3) 효과적인 표현 전략	74
2. 대중을 향한 의사 표현의 화법	84
(1) 이해하기 쉬운 발표	86
(2) 설득력 있는 연설	94
3. 상호 작용을 통한 문제 해결의 화법	104
(1) 효과적인 면접	106
(2) 생산적인 토론	114
(3) 성공적인 협상	122



Ⅲ

작문의 원리와 실제

1. 정보를 정리하여 전달하는 작문	136
(1)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글	138
(2) 나를 소개하는 글	149
(3) 탐구 결과를 보고하는 글	157
2. 의견을 펼치며 설득하는 작문	170
(1)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글	172
(2) 시사 문제를 비평하는 글	181
(3) 현안에 관해 건의하는 글	190
3. 사람을 이해하고 성찰하는 작문	200
(1) 친구를 위한 글	202
(2) 성찰과 정서 표현을 위한 글	209



Ⅳ

생활 속의 화법과 작문

1. 화법과 작문의 윤리와 관습	228
(1) 화법과 작문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230
(2) 화법과 작문의 관습과 문화	238



부록

• 듣기·영상 대본	252
• 자료 글 출처	259
• 이미지 자료 출처	262



화법과 작문의 본질

을 사회적 의사소통, 자아 성장과 공동체 발전, 맥락의 관점에서 살펴본 뒤, 필자의 진심이 담긴 한 권의 책을 읽으며 통합적인 화법과 작문 활동을 해 보는 단원이다. 이를 통해 세부적인 화법과 작문의 기능을 배우고 익히는 기초를 닦을 수 있다.

화법과 작문의 본질

I

1. 화법과 작문의 특성

한 권 읽기

2. 화법과 작문의 가치

핵심 역량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화법과 작문의 본질 이해하기



자기 성찰·계발 역량



자신의 화법과 작문 특성 점검하기



자료·정보 활용 역량



한 권의 책을 읽으며 통합적으로
화법과 작문 활동 하기



문화 향유 역량



책 읽기 활동을 통해
생각과 지식의 폭 넓히기

1

화법과 작문의 특성



- 브뤼헐, 「바벨탑」

사람에게 입이 하나이고 귀가 둘인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로 더 하라는 뜻이다.

_ 『탈무드』

글을 쓸 때는 항상 앞에 앉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 준다고 상상하라.

그 사람이 지루해서 자리를 뜨지 않도록 해야 한다.

_ 패터슨



학습 목표 <<

-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화법과 작문의 특성을 이해한다.
- 화법과 작문 활동이 자아 성장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을 이해한다.
- 맥락의 중요성을 알고 맥락을 고려한 화법과 작문 활동의 기초를 익힌다.



화법은 화자와 청자가 말로써 생각과 느낌, 경험을 공유하며 의미를 만들어 가는 행위이고, **작문**은 필자와 독자가 글로써 의미를 공유하며 의사소통하는 행위이다. 이는 화법과 작문이 모두 사회적 의사소통의 한 양상이라는 점을 뜻한다.

화법과 작문이 중요한 까닭은 그것을 통해 개인이 성장하고 공동체가 발전하기 때문이다. 말과 글을 바르게 쓰는 과정에서 개인은 스스로를 점점 하게 되고,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공동체 전체의 역량이 신장된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개인의 성장과 함께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화법과 작문이 좋은 화법과 작문이라는 뜻이다. 사람들이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서 여러 민족으로 뿔뿔이 흩어졌다는 바벨탑의 이야기를 떠올리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화법과 작문 활동을 잘하려면 맥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인지, 사람들의 입장과 생각은 어떻게 다른지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원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 쉽다. “맥락을 오해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나아가 맥락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유능한 화자와 청자, 필자라고 할 수 있다.

이 단원에서는 화법과 작문의 특성을 세 차원에서 알아보기로 한다. ‘단원의 짜임’을 중심으로 학습할 내용을 확인해 보자.

단원의 짜임

(1) 사회적 의사소통으로서의 화법과 작문

의사소통의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고

→ 사회적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화법과 작문의 본질을 탐구한다.

(2) 화법과 작문의 총위와 기능

화법과 작문의 총위와 기능을 이해하고

→ 화법과 작문이 자아 성장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양상을 탐색한다.

(3) 화법과 작문의 맥락

맥락에 따라 화법과 작문의 양상이 달라지는 점을 이해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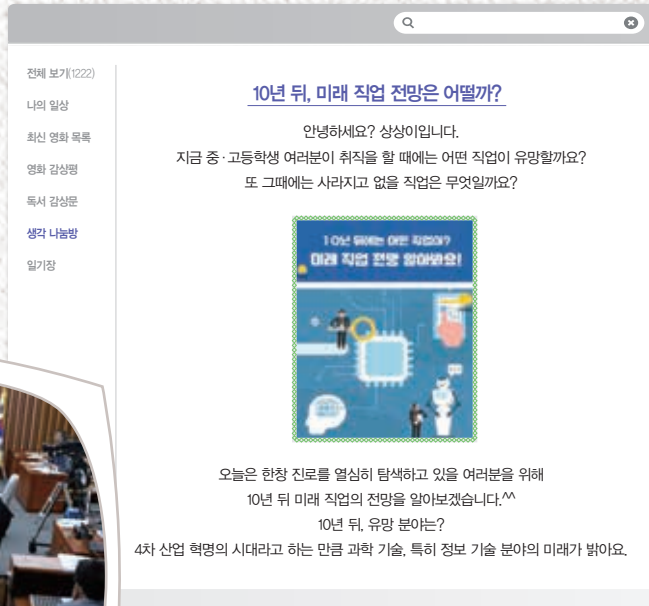
→ 맥락을 고려한 화법과 작문의 실재를 경험해 본다.



(1) 사회적 의사소통으로서의 화법과 작문

핵심 질문 왜 화법과 작문을 사회적 행위라고 할까?

후보자께서는
이 문제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청문회의 발언자와 블로그의 필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말하고 쓰고 있는가?
- ... 모든 말하기와 쓰기가 이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알기

- 의사소통이란 무엇인가?
- 화법과 작문은 어떤 사회적 특성을 지니나?

하기

- 언어 자료에 반영된 사회적 특성 분석하기
-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며 화법과 작문 활동 하기



66 화법과 작문은 발신자(화자, 필자)와 수신자(청자, 독자) 사이의 소통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행위이다.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개인적인 의사소통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화법과 작문을 잘하려면 그 사회적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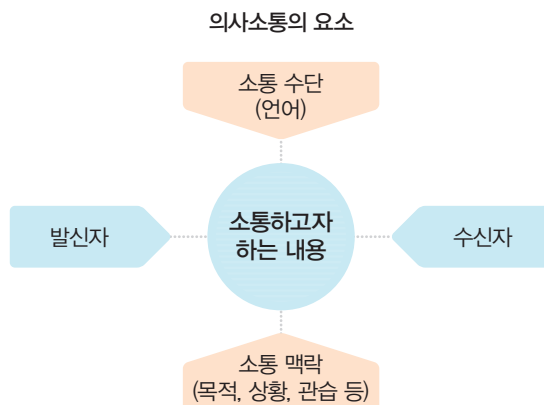
- 5 청문회는 대체로 한 사람이 묻고 한 사람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그것이 중계방송된다면 청자는 사실상 온 국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질문자와 답변자는 국민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말을 주고받는다. 블로그의 필자 역시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블로그를 찾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을 염두에 두고 글을 쓴다. 일대일의 대화나 문자 메시지도 결국 두 사람 사이의 상호
- 10 작용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행위라 할 수 있다.

1 의사소통의 개념

- 의사소통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말이나 글을 주고받으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가는 행위이다. “주말을 재미있게 보내자.”라는 목표를 위해 이런저런 의견을 내다가, 마침내 “강변 공원에 가서 자전거를 타자.”라고 합의하는 과정을 생각해
- 15 보면 알 수 있다. 작문도 독자가 원하고 독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설득력 있게 서술했을 때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할 수 있다.

- 일방적인 말하기라고 생각되는 ‘발표’나 남한테 보여 주지 않는 ‘일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는 잠재적인 청자 혹은 독자를 상정해서 그를 대상으로 말하거나 쓰기 때문이다. ‘이쯤에서 화제를 바꿔야겠다.’라든지 ‘그
- 20 단어보다 이 단어가 좋겠다.’와 같은 결정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생각을 잘 표현할 뿐 아니라 수신자에게도 적합하다는 생각에서 내리는 것이다.

- 사람들은 정보 전달, 설득, 친교와 정서 표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그 과정에는 여러
- 요소가 개입한다. 이러한
- 25 목적과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특히 중요하다는
- 30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의사소통에서 발신자와 수신자는 각각 일방적으로 의미를 전달하거나 받아들이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의사소통은 발신자와 수신자의 상호 작용, 상호 교섭을 통해서 이루어진답니다.



의사소통의 목적

- 정보 전달(기록과 전달, 설명, 정보 이해 등)
- 설득(주장, 요청, 평가, 의사 결정 등)
- 친교와 정서 표현(친교, 자기표현, 정서 공유 등)

2 화법과 작문의 사회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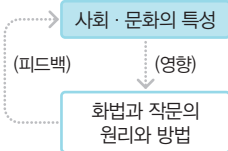
화법과 작문은 의사소통의 한 방법으로 화자와 청자, 필자와 독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 작용이다. 이때 발신자(화자, 필자)는 수신자(청자, 독자)를 고려하여 표현하고, 수신자는 발신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담화나 글을 이해하게 된다. 곧, 화법과 작문은 발신자와 수신자라는 ‘작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행위이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부탁할 때와 부탁받을 때 나의 말하기 방식이 달라지는데, 이는 부탁의 관계가 바뀔 때 친구와 나 사이의 관계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화법과 작문은 개인과 관련이 있는 집단이나 문화라는 ‘큰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도 하다. 앞에서 살펴본 청문회는 개인 간의 대화를 넘어서는 공적인 행위이고, 링컨 대통령의 연설이나 3.1 운동 때의 독립 선언서는 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에 큰 영향을 끼친 행위이다. 이렇듯 우리는 말과 글을 통해 언어 문화를 형성할 뿐 아니라 사회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고, 그 사회와 문화는 다시 우리의 말과 글에 영향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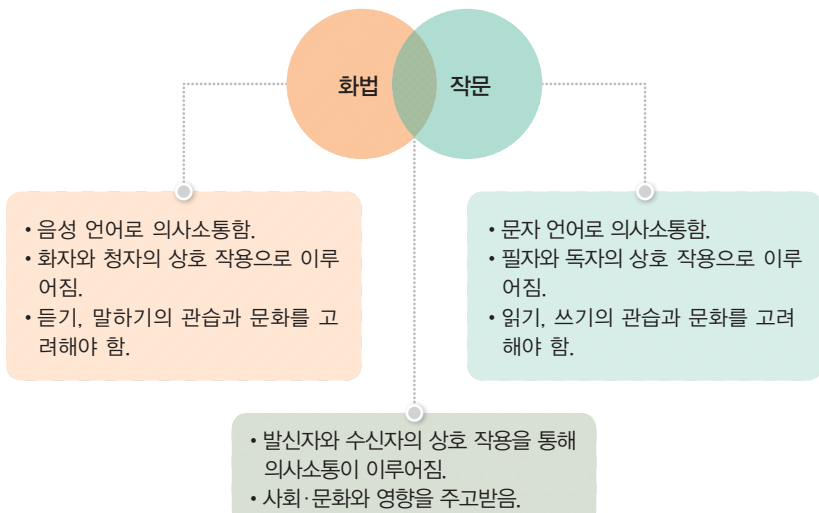
화법과 작문은 사회적 활동이므로 말을 주고받거나 글을 쓸 때는 높임법과 같은 언어의 관습과 문화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사회의 윤리, 참여자의 요구, 말과 글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해야 한다.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을 검증 없이 퍼뜨리거나, 수신자를 고려하지 않고 또래 집단에서만 통하는 줄인 말이나 이모티콘의 과도한 사용을 절제하라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 화법·작문과 사회의 관계



정리하기 사회적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본 화법과 작문



이해하기

1. 화법과 작문의 사회적 특성과 관련하여 다음 진술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진술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것을 타당하게 고쳐 보자.

- ㉠ 화자나 필자는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자신이 속한 사회의 관습과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한다.
- ㉡ 화자와 필자가 해당 사회의 언어문화를 창조하면, 청자와 독자는 그 언어문화를 향유한다.
- ㉢ 발표, 연설 등의 독화(獨話)보다 토의, 면접 등의 대화(對話)가 사회적 속성이 더 강하다.
- ㉣ 글쓰기는 필자의 과업으로, 그 과정에 다른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



독화

화자와 청자가 서로 역할을 바꾸어 말을 주고받는 대화와 달리, 한 사람의 화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을 하는 말하기 형태.

2. 다음 글을 읽고,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글쓰기의 의미를 생각하며 아래의 활동을 해 보자.

나는 종종 나 자신에게 질문한다. 만약 내일 우주의 파국이 닥쳐 온 세상이 파괴되고, 따라서 내일 누구도 오늘 내가 쓰는 것을 읽지 못하게 될지라도, 나는 오늘 글을 쓸 것인가? 첫 순간의 대답은 “아니요.”이다. 만약 누구도 나의 글을 읽지 못할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쓸 것인가? 두 번째 순간의 대답은 “예.”이다. 왜냐하면 은하들의 파국에도 어떤 별이 살아남아서 미래에 누군가 나의 기호들을 해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절망적인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묵시록의 전야에도 글쓰기는 여전히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이다.

글이란 오로지 어떤 ‘독자’를 위해 쓰는 것이다. 단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쓴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불행하고도 절망적인 사람은 미래의 ‘독자’에게 말을 건넬 줄 모르는 사람이다.

— 움베르토 에코, 『나는 독자를 위해 글을 쓴다』에서



• 움베르토 에코(1932~2016)
기호학자·철학자·역사학자·소설가. 세계적인 인기 도서 『장미의 이름』의 저자이다.

(1) 윗글의 필자가 스스로 대답한 “아니요.”와 “예.”의 의미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

(2) 윗글의 필자가 ‘글을 쓰는 이유’를 말해 보고, 나는 왜 글을 쓰는지 생각해 보자.

적용하기



3. 다음은 시각 장애 학생들의 미술 활동을 소개하고 있는 강연이다. 강연을 보고, 화법과 작문의 사회적 특성을 생각하며 아래의 활동을 해 보자.



모네(1840~1926)

프랑스의 인상주의 화가. 작품에 '수련', '소풍' 등이 있다.

드가(1834~1917)

프랑스의 화가·조각가. 작품에 '아프상', '대야' 등이 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이 누구의 그림인 줄 아세요? 네, 모네 맞습니다. 이걸요? 드가죠. 여기 이걸 살아 있는 어떤 사람의 작품입니다. 자, 이 세 작품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시겠어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던 작가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안 보이면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한 번도 상상조차 안 해 보셨나 봐요. 그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그 유명한 모네도 백내장을 앓을 때 이걸 그렸고, 드가도 중심부 안구가 손상돼서 말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대요. 이 가운데 있는 그림을 그린 학생도 어렸을 때 전맹으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빛과 어둠 정도밖에 구별하지 못하는 시력을 가진 ○○학교 중등부 학생입니다. [중략]

미영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저랑 한 미술 수업입니다. 크레용을 주면서 “마음껏 해 봐.” 그랬더니 다른 여느 아이들과 달리 온몸에다가 다 점점 칠을 하더라고요. 이 아이는 다운 증후군에, 시각 장애에, 구구단도 못 외우는 지적 장애에, 신체장애까지 가진 복합 장애아였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장애는 뭐냐 하면 장애 학교 안에서도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작품을 들고 오더니 “선생님, 이 사진 제목이 뭐게요?”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뭔데?” 그랬더니 “돼지 같은 내 얼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어 줄까?” 했더니 ‘탁’ 이렇게 누워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애가 이제 서서히 내면의 자신감을 찾아 가고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 단체가 매년 시각 장애 학생들의 미술 공모전을 하는데요. 자, 미영이가 이걸 가지고 거기서 대상을 받았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더 이상 미영이를 보이는 대로만 평가하지 않고, 심지어는 부러워하는 애들까지 생겼어요. 빨리 가서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려야지, 하면서 미영이가 뭐 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심한 따돌림을 당했고 자기 존재감이 전혀 없던 이 아이가 미술을 통해서 조금씩 자기를 찾아 가고, 자기의 모든 사소한 일상을 그리고, 만들고, 조각하는 예술가의 습관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미영아, 뭐 되고 싶어?” 하고, 그러면 미영이는 화가가 된다고, 사진작가가 된다고 그래요. 이런 미영이가 광주 맹아 학교에도 있고, 충주 맹아 학교에도 있고, 대전 맹아 학교에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미영이들 중에서 미술 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서서히 생겨났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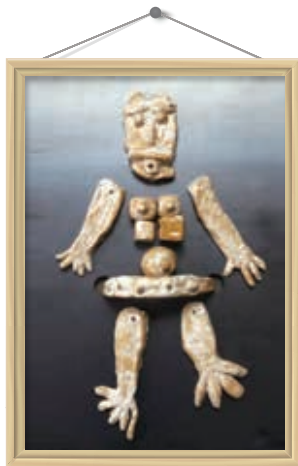
우리나라 헌법에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하지만 시각 장애 학생이 미술 대학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에 공개 토론회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저희한테 돌아온 답은, “보이는 사람도 미술 대학 나와서 취직하기 어려운데 안 보이는 애들에게 이런 헛된 꿈을 주고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느냐?”라는 비난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비난을 했지요. 저는 그때 14년 전 제가 시각 장애에 관해 가졌던 편견이, 그 거대한 벽이 제 앞에서 단 1cm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사실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시각 장애 학생들이 미술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지금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엄정순, 「다른 방식으로 보기」에서



• 엄정순(1961~)

서양화가. 장애 어린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고 있으며, 시각 장애에 관한 사회의 편견을 깨고자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레슬러 시엠 핑크」
시각 장애 학생의 작품
2008년, 30×50cm, 백토

난 레슬링을 보는 것이 정말 좋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는 바로 시엠 핑크예요. 우리 가족은 핑크를 사랑해요. 그래서 전 핑크를 만들어요.



「인천 코끼리」(원작 「코끼리」 대형화)
원작 「코끼리」를 만든 시각 장애 학생과 작가 선생님의 공동 작품
2009년, 550×150×110cm

코끼리 코를 만지는데 손이 콧구멍 속으로 쑥-들어가 버렸어요. 무진장 컸고 그 속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1) 위 강연의 내용과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해 보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방법

강연은 대체로 강연자의 말하기가 중심이 되지만 청중과 상호 작용을 하기도 해요. 청중은 강연 내용 중 이해하지 못한 점, 궁금한 점 등이 있으면 질의응답 시간에 강연자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2) 위의 강연자에게 다양한 입장에서 질문하고, 강연자 입장에서 답을 말해 보자.

강연 내용에 공감하는 입장

질문

- 미영이가 마음을 열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상 답변

강연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

질문

- 사람들의 편견이 지금도 심한데 대학이라고 다를까요?

예상 답변

(3) 위의 강연자와 '미영'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정리해 보자. 그리고 강연자는 자신과 청중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기를 기대할지 생각해 보자.

강연자와 '미영'의 관계

강연자가 '미영'에게
일반적으로 도움을 줌.



강연자와 청중의 관계

강연자가 청중에게 사례를
소개하고 공감을 호소함.

